

녹색성장을 위한 가정경영의 가치와 실천

Value and Practice for Green Growth from the Perspective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대전대학교 아동교육상담학과

교 수 차 성 란*

Dept. of Child Education and Counseling, Daejeon Univ.

Professor : Cha, Sung-Lan

<Abstract>

Since environmental problems were globalized, discussions on 'Sustainable Development' started from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Rio Agenda 21). In Korea, the idea of 'Green Growth' was introduced and generalized since the celebration speech made on 8.15(Independence Day of South Korea) on 2008. And Low Carbon- Green Growth Basic Law was established on 2010. There are 3 strategies and 10 sub-tasks to achieve green country-traffic and green revolution of life.

Family resource management is capable of changing life style from energy wasty to ecologically green. The value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plays a critical role in changing the lifestyle through influencing the goal and standard setting. So, this study is aimed to suggest the green value and green way of life from the perspective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Results are as follow. First, the green value is to change from 'material-oriented' to 'people-oriented'. The 'material-oriented' value pursues pleasure from possessing, but the 'people-oriented' value pursues pleasure from being itself. Second, the change from the value of 'human-mastery of the nature' to the value of 'mother-nature' is necessary. The value of 'human-mastery of the nature' seeks pleasure from the velocity and tangible outcome. But the value of 'mother-nature' seeks pleasure from the time to relax and slow way of life. Third, the change from the value of 'individualism' to the value of 'community spirit' is necessary. Individualism focuses on man's achievement, which may fall into family egoism. And the green way of life suggests the change from 'results-oriented' to 'enjoy the process itself', from 'consumption' to 'ecological restoration' and from 'work to home and then home to community'.

▲주요어(Key Words) : 녹색성장(green growth), 가족자원경영(family resource management), 가치(value), 녹색가치(green value)

I. 서론

1992년 리우 의제 21에서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이 제시된 이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2008년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면서 보편적 관심을 갖게 되었다(함태성, 2009:365). 녹색성장은 정부의 경제정책

틀 안에서 즐겨 사용하는 단어이다. 과거 60, 70년대가 경제성장만을 목표로 하여 달려왔다면, 이제는 환경도 보호해야면서, 그리고 환경보존적인 기술을 발전시켜가며, 환경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책의지의 표명이다.

한편 최근 국민들의 관심은 녹색 대 미녹색이라는 크게 두 갈래의 집단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녹색집단은 녹색의 가치를 인식하고 중요시 여기는 집단으로서 친자연적, 친환경적 삶을 통해 개인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여긴다. 전원주택에 대한 선호, 도심의 텃밭가꾸기, 귀농과 같이 좀

* 주저자 · 교신저자 : 차성란 (E-mail : slcha@dju.kr)

더 적극적인 녹색의 삶을 지향하는 이들로부터 전국 산하를 돌레길, 올레길로 만드는 걷기 열풍에 동참하여 녹색의 삶에 동조하는 이들이 되기까지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미녹색집단은 녹색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녹색가치를 지켜야 할 당면 역할 과제를 미처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전세계적으로 지향해오던 성장중심의 가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이다.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창출은 특히 사회에 첫발을 디디는 청년층의 입장에서 보면 유일한 탈출구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이하 실업률은 7.0%로 전체 평균 실업률 3.3%의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0).

녹색 대 미녹색 또는 녹색 대 성장, 정부정책 대 국민적 관심, 나아가 성장과 환경 사이의 균형을 놓고 대립하는 선진국 대 후진국, 이들의 미시적 관심은 각기 다를지 모르지만 이들 모두는 친환경적 삶의 방식과 지구생태계 보존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에는 지구환경이 보존되지 못할 때 어느 누구의 삶도 건강하고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다. 녹색지향의 삶이 모든 이들이 바라는 바라고 할 때, 이러한 삶을 담보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 기업, 국민이다. 정부는 2010년 1월 13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여기에서 자원절약 및 효율적 사용, 녹색기술 연구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다루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하여 가정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기본법 제 6장에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 기업의 녹색기술을 통한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 이 두 영역의 녹색가치구현을 위한 노력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통해 가족원 개개인이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실천'함으로써 마무리될 수 있다.

그동안 가정의 친환경적 행동에 대한 연구는 자원관리행동으로 접근(현금희, 1991; 노남숙, 1994; 장혜연·한경미, 1997; 이상협, 2003)되기도 했으나 많은 연구들(박운아·이기춘, 1997; 민현선·이기춘, 1999; 허경옥, 2004; 김성숙, 2007; 오진숙·김정숙, 2009)이 '소비생활'이라는 관점에서 시장상품의 구입, 사용, 처분 그리고 재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기능적인 접근을 시도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친환경행동의 예측변수로 환경의식 및 태도, 환경지식, 환경교육 등의 영향력과 관계(노영래·김시월, 2002; 유두련 등, 1996; 최남숙, 1994; 임혜연·박선희, 2006; 허은정·김지웅, 2010)등을 파악해왔다. 그러나 연구결과(Magrath, 1992; 공혜원, 2010:3에서 재인용)는 친환경적 소비자임을 자처하는 이들이 실제 구매행동에서는 환경친화적이지 못한 행동을 한다고 밝히고 있어 친환경행동을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동안의 친환경행동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들이 무위에 그쳤다면, '녹색생활의 실천'이라는 혁신적인 변화를 가능케 할

좀 더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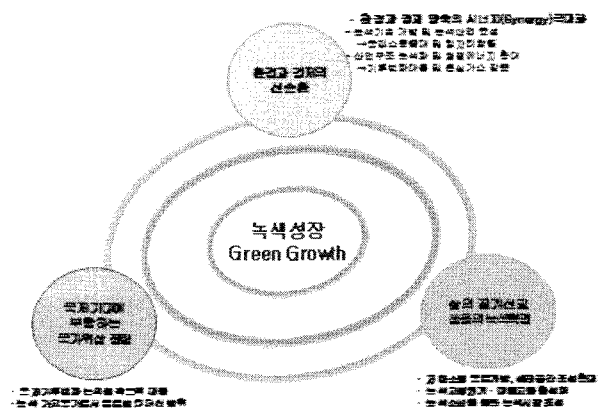
환경행동의 선행변수를 단계적으로 파악해보면 가장 기초를 이루는 것이 환경에 대한 태도, 또는 환경의식이라 할 수 있다. 환경의식은 자원관리행동에 있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식적이며 일관성있게 관심을 갖는 것으로 정의된다(정유경 등, 2009:238). 이에 비해 가치는 인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생각으로 개인이나 집단 혹은 사회가 옳고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이념이며(오진숙 등, 2009:15), 궁극적 상태(end-state of existence)나 특정 형태에 대한 지속적 믿음(Rokeach, 1973)이다. 방법론을 다음 과제로 넘겨두고, 우선 가치를 녹색의 가치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궁극적 상태로 여겨지는 녹색지향의 삶의 방식은 좀 더 지속적으로 영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가정경영의 가치를 검토해보고, 녹색의 가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지, 녹색성장기본법에서 제시하는 녹색성장, 녹색생활의 개념 파악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으로서 가정경영의 녹색가치 및 실천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가정경영영역에서 가치에 대한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녹색정책과 관련하여, 녹색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한 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녹색성장 정책

1. 녹색성장의 개념

정부정책의 틀 속에서 녹색성장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된 녹색성장기본법 제 2조에 의하면 녹색성장은 '에너지와 자원 절약 및 효율적 사용으로 환경훼손을 감소시키며,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출처: 녹색성장위원회(2009)

<그림 1> 녹색성장의 개념

<표 1>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구 분	Sustainable Development	en Growth
기 구	UNCSD	UN ESCAP
대 동	Our Common Future(1987)	UN 아·태환경개발장관회의(2005.3)
대 상	전세계 국가	아·태지역국가
배 경	성장의 결과인 환경오염의 복구	성장단계에서 환경오염방지
목 적	경제성장, 사회발전, 환경보호의 동시추구	빈곤극복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확보

출처: 지식경제부(2008).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해 나가는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으로 정의된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녹색성장은 궁극적으로 경제적 성장에 목표를 둔 개념이다. 지금까지는 환경에 대한 파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로지 경제적 발전을 통한 성장만을 추구해왔으며, 경제적 성장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인간의 생활환경을 오히려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기존의 성장 방향을 경제성장만이 아닌 환경훼손에 대한 고려하지만, 적극적인 환경보존의 정책을 택하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가던 궤적을 이탈하지 않은채 그대로 달려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진정한 녹색성장은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 외에 세대간, 지역간 자원사용기회의 형평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은 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1987년 4월 발표한 "우리의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 이후 환경정책의 새로운 이념으로 정립되었다. 그리고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에서 개최된 UN환경개발회의(UNCED)의 '리우선언'에서 핵심테마가 되었다(함태성, 2009:366).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기본이념은 지속가능발전이 가능하려면 사회, 경제, 환경분야의 영향력이 통합적으로 고려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지역, 계층, 세대 간에 차별적으로 발생하는 영향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는 두 가지이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 목적을 규정하고 있어서 개별 국가나 지역에서 정책방향을 임의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맹점이 자리잡고 있다.

이같은 맹점은 지속가능발전, 녹색성장의 개념을 정부의 성장지향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007년 제정된 지속가능기본법에서 제시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에는 경제와 환경 외에 공평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공평한 기회를 통한 모든 구성원들의 안정과 통합의 개념이다. 그러나 이것이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고 지속가능성 개념이 녹색성장의 개념으로 대체되면서 녹색성장에서 후자의 공평성 요소는 제외되고, 경제와

환경 개념만이 포함되었다.

이제 녹색성장의 개념을 재정의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의 뿌리는 지속가능한 성장에서부터 출발한다.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1980년대 초 Lester Brown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로 정의하였다(Capra, 2002; 김철수, 2004:30에서 재인용). 미래 세대와 공평하게 자원을 나누어 사용하려면 지구생태계의 균형이 잘 유지되어야 한다. 균형있는 생태체계는 어떤 체제인가?

20세기 중반 이후 국제사회가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환경문제는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에 있다. 풍요로운 물질적 생활, 즉 외형적인 경제적 발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환경문제를 해결하자는 전통의 보수적 환경주의가 고수되어 왔기 때문이다. 환경문제가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무르는 지구환경파괴의 딜레마를 벗어나기 위해 제기되고 있는 좀더 적극적 입장의 진보적 생태주의 관점에서 녹색성장이 개념화될 필요가 있다. 첫째, '인간이나 자연적 존재나 원리적으로 평등하다는 생명중심적 평등(biocentric equality)', 둘째, '나를 나 이외의 타인, 동, 식물, 나아가 지구까지 모두를 하나로 인식하는 자기실현(self realization)' (한면화, 2010:168). 이 두 개념을 기초적 인식 토대로 삼은 위에, 인간의 욕구충족을 위한 자원의 사용의 속도, 즉 쓰레기가 만들어져 지구생태계에 버려지는 속도를 그것이 생태계 순환망 속에서 흙으로 되돌려지는 속도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쓰레기 발생 속도를 현저히 생태속도에 맞추어 감속시켜야 함을 의미하며, 인간의 욕망과 소비수준의 저하를 요구한다. 인간의 삶의 질에 목표를 둔 녹색성장이라면 그 개념은 쓰레기를 만드는 속도와 버리는 쓰레기를 소화해서 흙으로 되돌리는 속도가 균형을 이루는 생태적 성장으로 개념화될 필요가 있다.

2. 녹색성장기본법의 지향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이 지향하는 바는 환경과 경제의 두 가지 목표를 동일 수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녹색성장

기본법 제 50조에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되어 있다. 지속가능발전은 3E 즉, 경제(economy), 환경(environment), 형평성(equity)을 원칙으로 한다. 형평성은 우리 모두의 삶이 상호의존적이라는 의식 하에 세대와 지역을 넘어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 표준을 지켜내자는 전세계적 약속이다(http://www.un-documents.net/). 그러나 우리의 녹색성장에는 '모두'를 위한 환경지향 대신 일자리를 포함한 녹색산업이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표 1> 참조).

이는 녹색성장 기본법 상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국민의 네 주체에게 요구하는 협력 사항에 잘 나타나고 있다. 기본법은 국민의 책무로 녹색생활의 실천, 녹색제품의 소비를 통한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그리고 환경에 대한 최종적인 문제해결자라는 인식을 하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사업자는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의 책임이 부과된다. 네 주체의 책임을 통해 본 녹색성장의 실체는 녹색기술을 개발,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하고, 그것을 국민들이 활발히 소비하자는 취지이다. 이 같은 논리 하에서는 제품과 서비스의 소비는 더 확대되고, 녹색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환경의 파괴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간과된다.

3. 녹색성장 전략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서의 정책 비전은 2020년, 그리고 2050년까지의 단계별로 세계 5대 녹색강국에 진입한다고 제시된다. 그리고 이를 위한 3대 전략은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 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를 설정하였다. 제시된 3대 전략과 비전에는 '녹색'을 새로운 방식의 경제성장을 가능케 할 도구로 삼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자칫 그동안의 경제발전을 통해 고갈된 에너지나 기후변화가 지금까지의 경제성장 속도를 지연시키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녹색기술의 개발과 녹색산업 육성을 핵심전략으로

<표 2> 녹색국토·교통 조성 및 생활의 녹색혁명과 실천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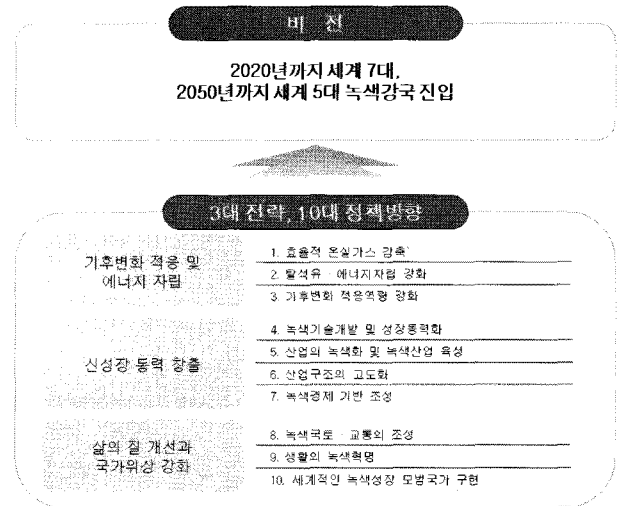
10대 정책방향	50대 실천과제
⑧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⑧-1 녹색국토·도시의 조성
	⑧-2 생태공간의 확충
	⑧-3 녹색 건축물 확대
	⑧-4 녹색 교통체계 구축
	⑧-5 자전거 이용 활성화
⑨ 생활의 녹색혁명	⑨-1 녹색성장 교육 및 녹색시민 양성기반 구축
	⑨-2 녹색생활의 실천 확산
	⑨-3 녹색소비 활성화
	⑨-4 녹색마을 조성 및 운동전개
	⑨-5 생태관광 활성화

출처: 녹색성장위원회(2009)

삼고 있다.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전략은 녹색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자체를 궁극적 상태로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사이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경쟁적 관계로서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녹색가치를 진정성 있게 이해하고 그에 따른 녹색성장의 비전이 되려면 녹색강국이 아닌 녹색의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비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녹색성장 전략의 10대 과제(<그림 2> 참조)중 가정경영 또는 가정생활환경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과제는 8번째와 9번째 과제로 설정된 '녹색국토·교통의 조성'과 '생활의 녹색혁명'(<표 2> 참조)이다. 이는 녹색생활이라는 용어로 설명된다.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는 녹색생활의 실천은 녹색생활 선진화 추이 모니터링을 위한 녹색생활지표 개발, 통합 캠페인, 브랜드 개발, 기업의 사회적 마케팅 지원 및 녹색 직장운동 전개, 분야별 녹색 전문가의 홍보대사 활용, 녹색시민·녹색가정 양성 및 확대, 녹색생활 실천 네트워크 강화 및 캠페인, 등으로 요약된다. 또한 녹색소비는 공공부문의 녹색구매제도 선진화, 산업 부문 녹색구매 참여확대 및 인센티브 강화, 일반국민의 생활 전반의 녹색소비 생활문화 확산, 저탄소 녹색제품 보급 확대, 소비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린유통망 확대, 녹색소비·생산 국제협력 증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녹색생활은 그런 점에서 기본법에서 정의한대로 단순히 '에너지 절약, 오염물질 최소화'의 생활'에서 나아가 지구생태계가 미래 세대에도 제공될 수 있도록 생태적 속도에 순응하는 삶의 방식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생태적 속도에 순응하는 삶이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자연 순환의 속도에 맞추어 생산, 소비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삶의 방식. 이러한 방식의 삶에서는 인간이 배출하는 여러 형태의 쓰레기들이 다시 자연



출처: 녹색성장위원회(2009)

<그림 2> 녹색성장의 3대 전략과 10대 과제

으로 되돌아 가 생태계의 유기체들이 균형을 이룬다. 이 같은 삶의 방식에는 과도한 욕망, 지나친 소비가 필요치 않다.

III. 가정경영과 녹색가치

1. 가정경영에서의 가치

가치는 '개인이나 집단이 마음에 갖고 있는 바람직한 것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관념'(Kluckhohn · Strodtbeck, 1961), 또는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람직한 상태(end-state)나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신념(홍은실 · 황덕순, 1997:356)으로 정의된다. 우리가 가치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일관성 있는 활동양식을 예측할 수 있는 지속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Rokeach(1973)는 가치를 '특정 행위 양식, 생활의 목적 상태 등과 관련하여 그와는 반대되는 것보다 더 낫다는 지속적 신념'(Rokeach, 1973)이라 정의하고 있다. 가치는 일종의 '내면화된 규범'(황정규, 1972; 권성희, 2002에서 재인용)으로서 일관성 있게 개인들이 '의사결정을 하거나, 갈등을 해소하고 어떤 행위를 정당화'(Rokeach, 1973)할 때 기준으로 제공된다. 때문에 가치는 인간의 개별적 행동 뿐만 아니라 일련의 행동들을 하나의 패턴화된 양식으로 가늠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인간의 행동양식을 가정경영의 차원으로 좁혀보면 가치는 역시 가족의 자원관리행동 양식을 가늠할 수 있다. 체계론적 관점에서 볼 때, 가치는 가족체계의 두 하위체계인 사회심리적 하위체계와 관리적 하위체계 사이에서 여러 관리적 요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가치는 사회심리적 하위체계에 속하지만 이는 자원관리의 목표 설정에 영향을 주며, 목표는 자원관리를 수행하는 표준에 영향을 준다. 가치가 구체화된 것이라 할 수 있는 표준은 반복적인 상호작용 과정을 거쳐 다시 가족원들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가치의 형성과 변화는 심리적, 정의적 영역에서 다양한 내, 외부 자극을 투입하여 사고한 결과물로 얻어진다. 외부적으로는 사회경제적 환경, 지리 및 기후와 같은 자연환경, 문화 등과 같은 다양한 자극이, 내부적으로는 정보습득, 체계적 학습, 심리적 작용 등이 투입되어 복합적인 사고 과정을 거쳐 형성된다(임정빈 등, 1994).

가치는 일관성과 지속성이 있으며 일련의 기준들이 체계화된 내면 규범이지만 내 · 외부환경 변화에 의해 시대적 변화를 나타낸다. 효, 가문중심, 종속적 가족위계 등의 전통적 가족가치는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크게 변했고, 산업사회에서 유행한 가치이던 산술적 목표지향의 물질지향, 업적지향적 가치에 대한 회의가 일기 시작하고 있다. 2010년 현재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취업, 건강, 가족의 순이지만 2040년에는 건강, 여가, 연금, 여유, 가족, 복지대 순이 될 것'이라 전망되

고 있다. 과거 중시되었던 물질과 노동의 가치가 하락하고 환경, 개인, 다양성, 여가의 중요성이 상승하는 것이다(헤럴드경제, 2010. 11. 23). 결국 이같은 가치의 변화는 가족원들에게 영향을 줌으로써 변화된 새로운 가치, 그에 기반한 변화된 가정관리행동 양식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2. 중심가치로서의 녹색가치

가치는 여러 기준에 따라 그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Rokeach(1967)는 가치를 궁극적 가치(terminal value)와 도구적 가치(instrumental value)로 구분하였다. 궁극적 가치는 기존의 가치체계에서 좀 더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가치로서 특정 대상에 국한되지 않으며 변화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비해 도구적 가치는 대상을 통해 구체화가 되며, 근본적인 변화 없이도 부분적 변화가 가능하다. 궁극적 가치의 특성이 중심성과 불변성이려면 도구적 가치는 외연성과 가변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한편 Kluckhohn과 Strodtbeck(1961)은 인간 집단에 공통적으로 부여되는 문제를 5개 영역, 즉 인간 본성,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시간관, 인간활동양식, 인간관계양식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 가치지향을 파악하였다. 5개 영역의 가치지향들은 좀 더 핵심적 가치인 궁극적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즉 개인이나 집단의 뿌리깊은 철학과 같은 궁극적 가치는 인간의 공통적 문제 5개 영역 전반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생태주의적 가치를 지닌 개인이나 집단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자연지배적이기보다는 자연조화적이거나 자연복종적인 가치를 지니고, 인간활동양식에 있어 성취지향(doing)이기보다는 존재적(being), 또는 성장적(being-in-becoming) 가치를 지닐 것이다. 또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개인주의적이기보다 공동체주의적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가치는 인간본성, 인간 대 자연, 시간, 인간활동, 인간관계 영역 전반에 적용되는 중심가치, 그리고 각 영역에서 특정 대상을 통해 구체화되고 표현되는 외연가치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녹색생활과 관련하여 인간 대 자연, 인간활동, 인간관계의 세 영역에서 녹색가치를 중심가치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녹색가치와 성장가치

가부장적 가족구조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남성의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억압을 지속시키기 위한 남성중심사회의 제도이다. 원시수렵사회에서 농경사회로 넘어오면서, 인간은 도구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생산성에 있어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남자들 중에는 육체적 노동력을 토대로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남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자급자

족의 요구를 충족시키고도 남는 잉여생산물을 갖게 된다. 잉여생산물로 생겨난 재산을 자손에게 상속시켜주기 위한 욕구는 혈통을 파악해야 할 필요를 낳았고, 이는 일부일처의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만들게 된 것이다. 이에 비해 출산과 양육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여성들은 '가정'이라는 공간과 경제적 능력을 지닌 남성에게 예측되는 양성불평등의 역사가 시작된다(앵겔스, 1891; 김대웅 역, 1989).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산업화는 더 높은 경제적 성장과 효율성의 방향으로 인간 삶의 방식을 규정화하였다. '자라서 커진다'는 의미의 '성장'이라는 단어는 본래 '자연'의 단어이다(강수돌, 2010:29). 인공적인 힘보다는 자연의 섭리에 의해 부피와 질량이 커지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성장, 경제적 발전은 곧 부이며 인간 삶의 질과 등식을 이룬다는 물질지향의 사고는 우리의 일하는 문화, 삶의 양식을 경쟁과 스트레스로 몰아왔다. 그리고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경제라는 세계를 하나로 묶는 시장경제체제는 효율적 자원배분이라는 명목하에 전세계인의 삶의 방식에 경쟁을 더욱 가열시키고 있다. 이같은 현상의 역사적 시발점은 육체적 노동력을 도구로 삼아 잉여생산물과 그에 따른 계급화를 낳은 남성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경제성장은 남성들의 성취지향적 가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녹색성장이라는 단어는 정책적 차원에서 환경과 경제의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이루겠다는 의도로 사용되어 왔다. 이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UN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가 2005년 서울에서 주최한 제 5차 환경과 개발에 관한 아태지역 장관회의에서였다. 아태지역 저개발 국가들은 선진국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합의를 끌어냈으며, 이에 경제성장단계에서부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전략을 제안하였다(함태성, 2009:365). 이처럼 녹색성장이 정책적 차원에서 차용되지만, 삶의 현장에 있는 우리들에게 '녹색'이라는 단어는 '자연'을 연상케 한다(<표 3> 참조). 자연은 있는 그대로의 의미이지만 성장은 인간의 기술과 지식이 힘을 발휘해 형태를 변화시키거나 파괴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자연은 생태계에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유기체들이 생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한다. 인공은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야만 한다. 보호에는 따뜻한 감정이 요구되지만 생산에서는 효율성이 낮으면 당장 문제가 된다. 따뜻한 감정은 곧 배려를 낳지만 효율성은 경쟁을 강화시킨다. 보호와 배려는 과정에서 발견되지만 생산은 오로지 효율성과 경쟁을 통해 목표달성을 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자연, 보호, 배려 등과 같이 녹색은 기르는 문화인 여성적 가치인데 비해 인공, 생산, 효율성과 경쟁 등으로 대변되는 성장은 만드는 문화인 남성적 가치와 일치한다.

IV. 가정에서의 녹색가치의 실천- 녹색생활

1. 녹색성장과 가정의 역할- 녹색가치를 가정경영의 가치로 받아들이기

현대사회에 이미 내면화되어 있는 남성적 성장지향의 가치를 버리고 여성적 자연지향의 가치를 가정경영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녹색의 여성적 가치를 가정경영의 가치로 받아들이기가 필요한 구체적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녹색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 정보, 기능을 교육하여 '녹색생활'로의 변혁을 기대하는 것보다 녹색지향의 가치를 가정경영의 가치로 확고히 자리매김 할 때, 장기적이며 근본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교육을 통해 의식수준의 향상을 기할 수 있지만, 녹색성장에 맞는 친환경적 실천을 의식으로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가치관의 변화는 행동양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다. Kluckhohn에 의하면 가치는 명시적 또는 암시적, 개인 또는 집단에서 어떤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방법, 수단, 목적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준다. 가정 내 모든 인적, 물적 자원관리를 수행하는데 있어 가치는 자원관리의 목표설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정학에서 가치는 모든 행동의 준거이며 방향을 제시해주므로 가족원들이 자신들의 바람직한 생활양식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기존의 소유의 삶의 방식을 존재의 삶의 방식으로 변화시키려면, 변화의 근원적 요소인 가치의 변화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임정빈 등, 1994:54-56).

둘째, 친환경적 실천은 개인의 생활영역, 그리고 생활공동체로서 가정에서 어떠한 생활양식을 펼쳐나가는가에 달려있다. 녹색성장을 위해 녹색기술개발, 녹색일자리창출, 환경친화세 제정 등 녹색성장정책과제 그 어느 것보다, 친환경에 기여하는 개인과 가족원과 같은 인적 인프라구축(홍승아, 2009:8)이 근본적이며, 녹색생활실천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선적 과제이다.

셋째, 가정은 진정한 여성적 가치 실현의 장이다. 가정은 소중한 생명이 탄생하고 자라는 녹색의 공간이다. 가족원 중

<표 3> '녹색'과 '성장'의 가치

녹 색	성 장
자 연	인 공
자연과 조화로운 인간 경제는 환경의 일부	자연을 지배하는 인간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보 호	생 산
정 서	효 율 성
배 려	경 쟁
과정중심	목표달성
공 감	문제해결
기르는 문화	만드는 문화

누구더라도 그가 얼마만큼을 성취했는지를 묻기보다, 그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여성적 가치의 공간이다. 녹색의 가치가 자리잡기에 가장 마땅한 곳이 가정이다. 일과 가정의 조화를 통해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곧 아버지, 남성들로 하여금 성장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있고, 기르기를 통해 행복을 누리는 가족 공동체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2. 가정경영에서의 녹색가치

① '사물'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가치로

삶의 중심에 사물이 자리잡을 때, 그것을 붙잡기 위해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야 한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가치판단의 기준이 효율성과 효과성, 투자 대 이익 등이 사고의 중심에 선다. 그러나 모두가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서의 인간이 삶의 중심에 자리잡을 때, 상대에 대한 보호와 배려, 공감과 수용의 여성적 가치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독일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인간의 삶의 방식을 소유양식과 존재양식, 둘로 나누었다. 소유양식은 소유와 성취가 삶의 목표인데 비해 존재양식은 세상에 살아있음 자체에 감사와 기쁨을 느끼며, 다른 존재와 우호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강수돌, 2010:72-73). 소유양식에 집착하는 이들은 흔히 소유물과 자기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크다. 소유물을 잃게 되는 경우, 자기 존재도 상실한다.

존재양식을 삶의 방식으로 택한 이들은 살아있는 자체가 기쁨이며, 또 다른 존재와의 긍정적 관계에 초점을 둔다. '인간' 중심의 가치인 것이다. 나와 다른 이를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고 상대와의 관계에서 얻게 되는 경험을 중시하므로, 끊임없이 따뜻함의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누구를 이겼을 때의 기쁨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 다른 누군가를 배려하고 보살핌을 주었을 때 느끼는 기쁨에 초점을 두는 삶의 방식이다.

② '만들기' 중심에서 '기르기' 중심의 가치로1)

만들기는 인공적인 힘이다. 자연의 속도를 거스르고 보다 빨리, 보다 많이 생산을 해 내야 만족하게 된다. 밀란 쿤데라의 소설 '느림'에서 "속도는 기술 혁명이 인간에게 선사한 엑스티시의 형태"라 했다(쿤데라, 1995). 속도의 황홀함에 빠져있는 이가 세상 도처에서, 그리고 가족에서 경험할 수 있는 크고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기르기는 성장을 기다려주는 것이다. 자연의 속도를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생명들이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연생태계의 유기체들임을 이해해야 한다. 그물망으로 엮여있는 모든 개체

들이 나뭇대로의 의미와 목적을 지니고 있음을 이해한다면 인간의 도구와 수단으로 삼을 수 없을 것이다(서미란·지영숙, 1999:99).

만들기에서 기르기로 중심축을 이동하는 것은 '빨리'의 가치를 벗고 '느림'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물질적 풍요를 제공하는 성장위주의 경제는 '스트레스 경제'이다. 인간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성장'일 뿐이다. 지금껏 성장의 개념을 양적인 것에 국한시켰다면, 이제 질적인 것을 성장(슈마허, 1973, 2002; 함연자, 2009:59에서 재인용)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만들기 중심의 가치로 구조화되어 있는 현대 산업사회는 기계의 권력을 증가(일리히, 2004; 함연자, 2009:530에서 재인용)시키는 대신 개인과 가족의 역할을 제한하여 수동적, 소극적으로 만든다. 기르기 문화의 사회에서는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체들이 자율성을 발휘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할 수 있다.

③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의 가치로

개인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인 individual의 어원을 살펴보면, 나누기(divide)를 더 이상 할 수 없는(in)이라는 두 개의 단어로 구성된다. 무엇인가를 계속 쪼개어 나간다고 할 때, 더 이상은 쪼갤 수 없는 것이 개인이라면, 쪼개어지기 이전의 개인들의 합은 무엇인가? 아마도 공동체가 될 것이다. 공동체는 community, 이 단어의 어원은 서로(com), 선물(munus)을 나누는 관계이다(강수돌, 2010:100).

원시 공동체는 서로 다양한 형태의 선물(munus)을 나누어야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상호의존의 세계였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 공동체가 아닌 '나'의 자각을 요구한다. 자기의 생존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독립적 경제주체를 양산해낼 수밖에 없다. 집단적인 안정보장의 울타리인 공동체가 무너져버린 상태에서 수많은 경제적 독립주체들은 경쟁을 통해 소유욕을 탐욕으로 진화시켜나간다. 경제성장으로 물질적 풍요는 얻었지만 공동체적 관계는 잃은 것이다.

세계환경개발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세계적 결의는 경제성장, 환경보전, 형평성에 입각한 사회정책, 즉 3E (Economy, Environment 또는 Ecology, Equity)(함대성, 2009:367)를 제시하였다. 형평성은 다음 세대와 나누어 사용해야 할 지구 자원을 '내'가 다 사용하지 않으며, 세계 구석진 곳에 있는 이들과 나누어 마셔야 할 물을 '내가 다 마셔버리지 않고 함께 나누는 사회정의를 의미한다. 우리 모두의 삶이 상호의존적이라는 의식 하에 세대와 지역을 넘어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 표준을 지켜내기 위한 전세계적 약속이다(<http://www.un-documents.net/>). 이는 우리 모두가 지역사회 공동체, 지구 공동체 가치를 내면화했을 때 가능하다.

1) 윤구병(2010). '자연의 밤상에 둘러앉다'에서 기본적인 생각을 가져옴.

2. 녹색가치의 실천

진정한 녹색성장을 위해 가정경영에서 받아들여야 할 녹색가치는 '사물'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가치, '만들기' 중심에서 '기르기' 중심의 가치,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의 가치로의 전환으로 제시되었다. 이에 바탕을 둔 녹색가치의 실천은 '문제해결중심'에서 '과정즐거움'로, '소비'에서 '순환'의 생활양식으로, '직장에서 가정으로, 다시 가정에서 마을로 나아가기'를 제안한다.

첫째, '문제해결중심'에서 '과정 즐기'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일이 아니라 자녀양육,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에서 기쁨 찾기가 한 예가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정책은 그런 점에서 문제라 할 수 있다. 가족친화적 직장환경조성의 일환으로 어린이집을 수적으로 증가시킨다거나 표준인증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육서비스 향상이 일-가정의 조화가 아니라 부모들이 보육을 시장서비스로 사회화시키고, 더 많은 소득활동을 보장하는 방편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문제이다.

둘째, '소비'에서 '순환'의 생활양식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행복은 소비/욕망으로 표현된다(이정전, 2008). 행복을 늘리기 위해서는 소비를 늘려야 하는 것이다. 늘어난 소비에도 불구하고 행복이 증가하지 않는 것은 욕망이 무한히 반복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소비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욕망을 줄이는 것은 손쉽게 행복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된다. 이 같은 방법은 행복의 증가 뿐 아니라 소비를 통한 자원소모량을 줄여주며, 소비의 결과물인 쓰레기도 줄여준다. 도시의 소비적인 삶은 거의 한 순간도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는 유지되지 못한다. 일종의 쓰레기(만들기) life style이다. 이를 보다 생태 순환적인 삶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도시농업이나 텃밭가꾸기와 같은 방법 외에도 일상에서 생태적 속도에 맞추어 가는 삶의 노하우는 무한히 많다.

셋째, '직장에서 가정으로, 다시 가정에서 마을로 나아가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잦은 침략과 전쟁, 이후 안정되지 못한 사회경제적, 정치적 구조는 가족을 중심으로 단결하는 가족주의를 만들어냈다. 가족주의는 가족복지기능, 가족을 통한 성취, 계층상승 기능 등은 우리 사회의 일 중심적 가치에 기여해왔다. 이제 다시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찾기 위해 가족원들을 가정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녹색의 가치 실현은 '나' 중심에서 '타자와 더불어'의 정신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가족과 가정에 머물지 말고 이웃과 마을생활에 관심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

V. 결 어

전세계가 지구환경의 보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지속가능발전, 녹색성장 등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세계적 흐름에 발 맞추어 우리 나라에서도 2007년 8월에는 지속가능발전법, 그리고 2010년 1월에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지속가능발전법은 궁극적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가 지구환경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이어지는 모든 세대가 지속적으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은 지속가능발전법 제 2조 2호의 지속가능발전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그 목적은 달라진다. 제 1조에 제시된 목적에는 녹색기술, 녹색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하여 국민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앞으로 이어질 모든 세대들이 지구환경에서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는 정부정책 이외에도 기업활동, 가족원들의 생활양식이 각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가족원들의 자원관리행동을 예측하고 또 변화시킬 수 있는 가정경영의 가치는 지속가능한 녹색 삶의 방식을 이끌어내고 유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가정경영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녹색가치는 무엇이며, 그 실천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제안적 차원의 연구를 시도하였다.

우선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구환경문제를 환경의 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녹색기술이나 녹색산업과 같은 또 다른 성장의 수단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녹색성장으로 가는 길은 녹색기술에 있지 않다. 녹색기술은 녹색이라는 환경보존을 명목으로 하여 또 다른 환경과파괴를 가져오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태양광 에너지 기술을 활용하면 환경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실재는 그렇지 않다.

녹색성장으로 가는 길은 '성장의 속도'가 해결의 열쇠이다. 이를 생태적 성장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생태적 성장은 생태계가 순환하는 속도, 즉 자연의 시간을 기다리며 성장하는 것이다. 인간생활에서 만들어내는 폐기물이 생태계로 돌아가 다시 자원으로 재생되는 속도에 맞추어, 즉 그만큼만 성장의 속도를 늦추어 생태계의 시간 순환에 조율시키는 방식이다.

녹색 삶의 실천의 장인 가정에서는 우선 녹색가치를 가정경영의 가치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가치는 가족자원관리행동의 선행조건이기 때문이다. 녹색가치가 가정경영의 가치로 확고히 자리잡는다면 가족원들의 일상적 생활은 녹색 삶의 방식으로 변함없이 지속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해결방안이 그리 쉽게 우리 사회의 녹색 삶의 방식으로의 변화를 가져오리라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이나 녹색성장, 녹색뉴딜 등의 정책이념으로 전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보수적 환경주의를 여전히 택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화된 시장환경의 장 깊숙이 들어와 있어 그 같은 경쟁적 성장중심의 정책을 포기 또는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말해준다.

산업사회의 발달된 문명적 혜택에 익숙해 있는 가족원들이 기존의 생활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녹색가치를 받아들이기에는 주어진 일상생활의 경험 수준과 환경문제를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이상으로 삼는 녹색 삶의 방식의 이념 및 생활상 사이의 거리가 무척 먼 상태라는 점이다. 때문에 가정경영에서 녹색가치의 필요성, 그에 따른 생활환경과 지구자원의 바람직한 변화에 대해 끊임없이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기적인 사후적 처리 식의 해결이 아니라 예방적, 사전적 차원에서 장기적인 가정경영 가치로의 정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말한다.

【참 고 문 헌】

강수돌(2010). **시속 12킬로미터의 행복**. 서울:굿모닝미디어.
 공혜원(2010). **가치관, 소비가치 및 환경의식적 행동이 친환경 제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권성희(2002).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부모의 가치 지향성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논문.
 김성숙(2007).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와 친환경농산물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15-32.
 김철수(2004). **지속가능한 성장과 “자발적 단순성”과의 관계**. **사회과학논총** 23(1), 27-49.
 노남숙(1994). **환경관리지식 인지도와 환경관리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영래 · 김시월(2002). **소비자의 환경의식, 재활용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1), 163-178.
 녹색성장위원회(2009).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 녹색성장위원회.
 민현선 · 이기춘(1999). **환경친화적 소비태도와 소비행동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7(1), 29-44.
 박운아 · 이기춘(1997). **소비자의 환경친화적 행동과 관련요인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5), 221-238.
 서미란 · 지영숙(1999). **가정철학의 실천적 생활 연계를 위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3(2), 91-103.
 슈마허, E. F.(1973), 이상호 역(2002). **작은 것이 아름답다**. 서울: 문예출판사.
 엥겔스, F.(1891), 김대용 역(1989).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서울:아침.

오진숙 · 김정숙(2009). **청소년소비자의 소비가치와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7(10), 13-28.
 유두련 · 심미영 · 정경옥(1996). **환경교육이 환경의식적 소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197-210.
 윤구병(2010). **자연의 밥상에 둘러앉다**. 서울:휴머니스트.
 이상협(2003). **환경친화적 가정자원관리행동과 환경의식, 환경지식, 환경교육**.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1), 91-102.
 이정전(2008). **우리는 행복한가**. 서울:한길사.
 일리히, 이반(2004). **이한(역). 성장을 멈춰라**. 서울:미도.
 임정빈 · 지영숙 · 문숙재 · 이기영 · 이연숙(1994). **가정관리학**. 서울:학지사.
 임혜연 · 박선희(2006). **중학생 자녀와 어머니의 생활자원관리에 대한 친환경 지식과 의식 및 태도**. **한국가정과학회지**, 9(3), 23-36.
 장혜연 · 한경미(1997). **주부의 가치와 친환경적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5(3), 1-13.
 지식경제부(2008). **지식 · 혁신주도형 녹색성장을 위한 산업발전전략**. 지식경제부
 최남숙(1994). **환경교육과 환경의식이 환경보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5), 29-44.
 쿤데라, 밀란(1995). **느림**. 서울:민음사.
 통계청(2010). **2010년 10월 고용동향 보도자료**. 통계청 프롬, 에리히(1997). **소유냐 존재냐**. 서울:범우사.
 한면희(2010). **현실 녹색정책의 이념과 생태주의 사상**. **동서사상**, 8, 161-184.
 함연자(2009). **현대 패션에 나타난 ‘느림’의 패러다임**.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1(4), 527-536.
 함태성(2009).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의 관계정립에 관한 법적 고찰-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제정에 관한 법적 논쟁과 관련하여**. **환경법연구**, 31(1), 355-376.
 허경옥(2004). **소비자구매행동유형과 환경에 대한 태도 및 환경친화적 행동**. **한국생활과학회지**, 13(4), 569-579.
 허은정 · 김지웅(2010). **친환경농산물 구매지출에 대한 소비자 지식과 소비자태도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9(5), 883-896
 해럴드 경제(2010. 11. 23). **30년 후 삶의 질 결정요소는 건강, 여가, 연금 순**.
 현금희(1991). **환경문제에 대한 태도와 행동 일치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홍승아(2009). **녹색성장과 젠더**. **젠더리뷰** 13, 여름호, 4-11.
 홍은실 · 황덕순(1997). **가치대상에 따른 주부의 도구적 가치의 차이 비교-가정생활과 가정외의 생활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355-368.
 황정규(1972). **교육평가**. 서울:교육출판사.

- Capra, F.(2002). *The Hidden Connection: A Science for Sustainable Living*. Anchor Books.
- Kluckhohn, F . & F. Strodtbeck(1961). *Variation in value orientations*. Evanston, Illinois: Row, Peterson and Company.
- Kluckhohn, F. R.(1960). *Variations in the basic values of family systems*, in N. W. Bell & E.F. Vogel, *The Family*. Illinois: The free press of Glenogof.
- Rokeach, M.(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Glencoe, IL: Free Press.
- <http://www.un-documents.net/ocf-02.htm#I>

- 접수 일 : 2011년 01월 15일
- 심사 일 : 2011년 02월 06일
- 심사완료일 : 2011년 03월 22일